

“5월 18일에 이벤트 열려다...” 고개숙인 타이거즈



최원준

KIA, 이의리 선발 경기 ‘의리의리한데이’ 행사 논란 속 연기
“추모일에 부적절” 지적에 사과 ... 신인 선수에 부담까지 안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리의리한 데이’가 연기됐다.

KIA 타이거즈는 이의리가 선발 등판하는 18일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의리의리한데이’ 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KIA는 ‘특급루키’의 등판을 보기 위해 걸음을 하는 팬들을 위해 입장권을 30% 할인해주고, 입장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특별 티셔츠를 선물할 계획이었다. ‘의리’라는 이름을 가진 KIA 팬을 초청해 시구와 시타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었으나 ‘5·18 논란’이 불거졌다.

KIA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의리의 등판 날짜에 맞춰 5월 18일에 이벤트가 준

비했다.

이를 놓고 반응은 엇갈렸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구단이 5월18일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기도 했고, ‘5·18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것과는 별도로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KIA는 결국 이벤트 연기를 결정했다.

KIA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팬들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18일 예정된 ‘의리의리한 데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신인 선수에 대한 팬들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행사였으나 날짜

선정에 있어 사려 깊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KIA가 ‘이의리’라는 스타 선수에 초점을 맞춰 이벤트를 기획했지만, 팬들의 갈등만 키운 실패한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팬들 논란을 야기하면서 안 그래도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막내’ 이의리에게도 부담만 더해 주고 말았다.

경기 하루 전 이벤트를 취소한 KIA는 18일 기준에 약속했던 입장권 30% 할인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날 입장 관중에 티셔츠 교환권을 주고, 다음 플레이데이날에 맞춰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원래 예정대로 이날 응원단은 운영하지 않고, 기존처럼 응원단 인력을 캠페인 등 업무에 대체 투입한다. KIA는 5월 18일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에는 응원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홈런 군단’ SSG·삼성과 힘겨운 싸움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SSG 상대로 홈 3연전
주말에는 대구서 1위팀과 대결

KIA 타이거즈가 홈런-집중력과 싸운다. KIA는 18일 SSG 랜더스를 상대로 안방에서 홈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대구로 가서 잘나가는 삼성라이온즈와 만난다.

7연전 일정이 전개되면서 마운드 운영이 중요한 한 주, 상대의 한방을 조심해야 한다.

KIA는 지난 15일 ‘홈런군단’ NC와의 파워 싸움에서 밀리며 역전패를 기록했다.

1회 2점은 냈지만 1사 만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이어진 1회말 수비에서 권희동과 알테어에게 홈런을 내줬다. 7회에도 박석민에게도 홈런을 맞는 등 쥐어짜서 점수를 만든 KIA는 상대의 시원한 홈런에 허무하게 승리를 내줬다.

이번 주 만나게 되는 SSG(44개)와 삼성(35개)은 NC(57개)에 이어 팀 홈런 2·3위를 달리는 팀이다. 상대의 ‘한방’을 조심해야 한다.

최형우와 나지완이 빠진 팀 홈런 꼴찌 KIA(11개)는 소총부대의 집중력으로 승부 할 수밖에 없다.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삼성	36	21	0	15	0
2	NC	35	20	0	15	0.5
2	LG	35	20	0	15	0.5
4	KT	35	19	0	16	1.5
5	두산	34	18	0	16	2.0
5	SSG	34	18	0	16	2.0
7	키움	37	18	0	19	3.5
8	KIA	35	15	0	20	5.5
9	한화	36	14	0	22	7.0
10	롯데	35	13	0	22	7.5

뜨거운 5월을 보내고 있는 최원준과 김태진이 공격 전면에 선다.

최원준은 5월 12경기에서 51타수 21안타로 0.412의 타율을 찍고 있다.

류지혁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던 김태진도 연속 안타 행진 속 5월 12경기에서 타율 0.404(52타수 21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두 사람은 15일 경기에는 테이블세터로 호흡을 맞추면서 나란히 3안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홈으로 불러주는 화력이 약하다.

특히 최원준은 5월 21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했지만 홈에 들어온 경우는 9번에 불과했다.

1회가 아쉽다.

KIA는 올 시즌 1회 0.310의 팀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44개의 안타와 15개의 볼넷을 만들어내면서 1회 강세를 보였지만 득점(20개)보다 전루가 많았다. 확실하게 호흡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에서 6개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아쉽게 끝난 1회가 많았다.

리드오프로 뛰고 있는 최원준도 1회 좋은 성적표를 작성하고 있다.

35경기에서 1회 14개의 안타를 만들었고, 2루타와 3루타 2개도 기록했다. 3개의 볼넷도 얻어내면서 선두타자 출루로 분위기를 살렸지만, 9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KIA의 강점으로 꼽혔던 중심타선이 부상에 신음하고 있는 게 아쉽다. 터커, 나지완, 최형우는 지난해 67개의 홈런과 320타점을 합작하면서 중심타선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형우가 망막 이상, 나지완이 옆구리 근육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락가락 도깨비 방망이가 됐지만 KIA는 올 시즌 4차례 선발 전원 안타도 장식했다.

‘한방군단’을 상대로 소총부대가 집중력 있는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시즌 12호 골

프랑스 리그1... 박주영과 타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지롱댕 보르도의 황의조(29)가 시즌 12호골을 터트리며 박주영(36·FC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황의조는 17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누보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열린 랑스와 2020-2021 리그1(1부리그) 37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2분 페널티킥(PK) 선제골을 터트리며 팀의 3-0 완승에 앞장섰다.

지난달 12일 생테티엔전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황의조의 시즌 12호골이다.

보르도로 이적한 2019-2020시즌 6골(2도움)을 올린 그는 프랑스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며 자신의 유럽 무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더불어 이날 득점으로 황의조는 그보다 먼저 프랑스 무대를 밟았던 박주영이 2010-2011시즌 AS 모나코에서 남긴 ‘한국인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12골) 타이 기록을 작성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한 경기가 남은 가운데, 최종전에서도 득점할 경우 황의조는 박주영을 넘어 세계 된다.

랑스를 꺾은 보르도는 승점 42(12승 6무 19패)로 14위에 자리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8위 낭트(승점 40·9승 13무 15패)와 승점 차는 2로, 보르도의 잔류 여부는 마지막 38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전반 32분 랑스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은 보르도는 카커로 나선 황의조가 이를 오른발로 침착하게 차 넣으면서 리드를 잡았다.

/연합뉴스

이경훈 ‘79전 80기’

AT&T 바이런 넬슨 우승... PGA 투어 첫 승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를 기록한 이경훈은 2위 샘 번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45만 8000 달러(약 16억4000만원)다.

이로써 이경훈은 최경주(51), 양용은(49), 배상문(35), 노승열(30), 김시우(26), 강성훈(34), 임성재(22)에 이어 한국 국적 선수로는 통산 8번째로 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올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김시우 이후 약 4개월 만에 전해진 한국 선수의 PGA 투어 승전보다.

국가대표 출신 이경훈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한국오픈에서 2015년과 2016년 2연패를 달성했고,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에서도 2승을 거둔 선수다.

2016년 PGA 2부 투어에 입문한 그는 2018-2019시즌부터 PGA 정규 투어에서 활약, 이번엔 통산 80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 감격을 누렸다.

3라운드까지 번스에 1타 뒤진 단독 2위였던 이경훈은 2~4번 홀에서 3연승 버디를 잡아 선두로 뒤흔었다.

이후 6번과 8번 홀에서도 1타씩 줄이며 오히려 2위권 선수들과 간격을 3타까지 벌였다.

9번 홀(파5) 티샷 실수로 1타를 잃은 이경훈은 12번 홀(파5)에서 다시 한 타를 줄여 3타 차 리드를 지켰다.

위기는 16번 홀(파4)에서 찾아왔다. 약 4.5m 파 퍼트를 앞둔 상황에서 약전후로 2시간 30분 정도 경기가 중단됐다.

경기가 재개된 후 이경훈의 파 퍼트가 다소 짧아 2위권 선수들과 격차는 2타로 줄었다.

그러나 이경훈은 이어진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앞 1m 남짓으로 보내 다시 3타 차로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3타 차 리드를 안고 마지막 18번 홀(파5)에 들어선 이경훈은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직접 공략해 ‘투온’에 성공했고 약 12m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춰 서며 기분 좋은 버디로 자신의 투어 첫 우승을 자축했다.

강성훈은 최경주와 함께 18번 홀 그린에서 이경훈을 기다렸다가 후배의 첫 우승을 축하했다.

올해 2월 피닉스오픈 공동 2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이경훈은 이번 우승으로 20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했다.

7월 출산을 앞둔 아내 유주연 씨에게 멋진 선물을 안긴 이경훈은 또 2022-2023시즌까지 PGA 투어에서 뛸 자격을 확보했다.

강성훈은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4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7일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최종 우승한 이경훈이 아내와 함께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